

광양향교, 지자체 차원 안정적 재정 지원 절실

LOCAL

2025년 8월 5일 화요일

회원수 감소·재정난 등 효율적 관리·운영 어려워 지원 법적 근거 미비...“관련 법령 정비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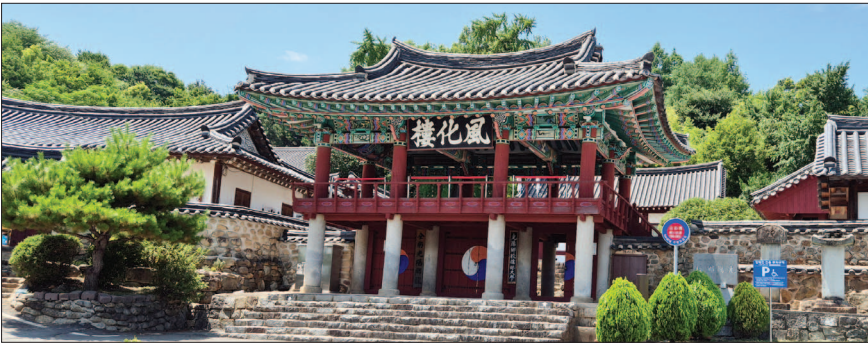
전남도 지정 문화유산 제11호인 광양향교가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문화재 관리비’ 외의 운영경비 직접 지원은 법적 해석의 논란 탓에 정부나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광양시와 광양향교 등에 따르면 광양향교는 1396년 조선시대에 창건돼 지금까지 지역의 유교문화를 계승해온 교육·제례 공간으로, 백운산 약수제, 춘·추기

석전대제, 봉양사 석제례, 유림대학, 여성유도회 요리강습, 기로연, 한시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전통 행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춘추기 석전대제, 봉양사 제례비, 유림대학 운영, 기로연 행사, 여성유도회 요리강습, 한시 백일장, 매천서예대회, 땡모삼천지교 체험행사 등에 행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교 자체 운영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



광양향교 풍화루

과 사무국장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광양향교는 향교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광양향교 유림회원은 350여명이며, 이 중 이사 30명은 연간 10만원, 일반

회원은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회비 수입은 600만원 수준에 그쳐, 기본 운영 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교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는 ‘지자체장이 명시적 법령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염규선 광양향교 유도회장은 “올해 4월 유도회장으로 취임해보니, 향교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정부나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 향교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구례, 전지훈련 멘토링 운영

김기태 감독·김민재 선수 참여

구례군은 최근 공설씨름장에서 ‘2025년 전지훈련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지훈련에 참가한 씨름 선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영암군 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과 천하장사 김민재 선수가 직접 참여해 현장강의를 펼쳤다. 이들은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강연, 기술훈련, 사인회 및 기념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과 소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멘토링을 통해 미래 꿈나무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기 주도적인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인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순천, 친환경보일러 설치 접수

11일부터 선착순 39세대 지원

순천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과 ‘사회적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1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활사업 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1대당 60만원씩 35세대에 지원하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사회적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1대당 80만원씩 4세대를 지원, 총 39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자는 순천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서류를 갖춰 온라인 접수하거나 순천시 생태환경센터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은 물론,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나주, 축산 악취 40년 숙원 풀었다

세지면 대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나주시가 40년 넘게 지속된 축산악취 해소라는 숙원 해결을 맞은 세지면 대산리 주민들과 함께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의 기쁨을 나눴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세지면 대산리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의 기쁨을 나누는 마을 잔치가 열렸다.

마을 잔치는 대산리 죽산마을회관에서 열렸으며 대산 1·2·3리 주민들이 공동 주최해 40년 넘게 지속된 도시 악취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행사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 공무원과 지역 인사, 마을 추진위원회, 주민 등 100여명이 함께해 성과를 축하하고 기쁨을 나눴다.

한 주민은 “평생 맡아온 악취가 사

라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는 손주들도 마음 놓고 마당에서 놀 수 있을 것 같아 큰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나주의 중심은 농촌’이라는 신념으로 농촌 현안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대산리 사업은 그 결실로서 돌아오는 농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세지면 대산리를 포함해 최근 4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공모 선정되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



구례군은 최근 공설씨름장에서 영암군 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과 천하장사 김민재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전지훈련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함평-초당대,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 인재 양성 등 협약...“지역소멸 과제 협력 출발점”

함평군이 초당대학교와 손잡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초당대학교와 지역 활력 회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인구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소재 중심의 농업소득 발굴 등 식품산업 관련 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

모하고 청년층의 농식품 분야 진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글로벌 조리학과 교육, 그리바바이오 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정주형 청년 인재 양성 등 행정·제도적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향후 초당대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취업 지원, 지역특화산업 연계 교육, 지역 정주기반 확충 등 다양한 실천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며 서민권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상의 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소멸



이라는 당대의 과제를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다”며 “초당대와 협력으로 청년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고, 교육·산업·삶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함평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원길 기자 6263739@gwangnam.co.kr

고흥, 도양읍 침수예방 정비사업 주민공청회

고흥군은 최근 도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양읍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 실시 설계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지역주민과 도·군의회의 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양읍 시가지는 저지대에 위치해 강우 시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주민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군은 도양읍이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

도록 환경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4년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656억원 중 1단계 사업비 415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항구적인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우수관로 개보수 15.1km, 빗물펌프장 신설 2개소,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926개소 등이다. 군은 오는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1단계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특허등록번호 10-1772039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12개
K-낙산균 200 mg, LactoSpore 200 mg,
Bifidobacterium 100 mg, 유산균 10 mg
(총 12개 균주 포함)

VITAMIN HOUSE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